

The Keyword II.

차원 (땅을 풀어내는 하늘의 생각)

1. 구원 - 다른 차원의 삶

[골로새서 3:1-3]

1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2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3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출애굽이다. 즉, BC와 AD의 명확한 구분을 말한다. 애굽과의 완전한 결별은 애굽의 옛자아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홍해의 세레이다. 세레(침례)란 무엇인가? 물에 잠긴다는 것은 옛 자아가 죽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구분은 모호함이 없다. 명확하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하여 증거한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 엄청난 선포이다(3절). 이미 우리들의 죄 된 옛자아는 죽었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 삶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3:1-2의 말씀을 보니 분명하다.

1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2절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차원’이라 말할 수 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하늘의 차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말이다.

2. 차원

하늘의 차원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차원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낮은 차원은 항상 높은 차원에 속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땅의 어떤 문제도 하늘의 차원에 담기지 못할 것이 없다. (* 땅 : 한계, 막힘, 묶임, 벽, 정체, 맷힘 등)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키워드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 고통, 아픔, 억울함, 슬픔으로 고통 당한다. 그들이 느끼는 고통의 ‘시간과 공간’의 벽은 실재이다. 고통으로 벗어난다는 의미는 그들이 속한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 치는 것이다. 육인 사람이 느끼는 마지막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바로 ‘죽음’이며, 그것은 사람이 넘어야 할 마지막 벽이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이 주는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을 말한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요한복음 20:19] 그 날, 곧 주간의 첫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닫힌 벽을 통과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리고 두려움의 공간에 갇혀 있던 제자들을 ‘평강’으로 자유롭게 하신다.

다른 차원이란 이와 같은 모습을 말한다. 이 세상 어떤 차원의 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위에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라’고 말씀 하신다.

3. '초(超)' 시대의 의미

“통신사 SK텔레콤은 기업브랜드 전면에 ‘초(超)시대, 생활이 되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뛰어넘다’라는 뜻의 ‘초(超)’가 내포한 혁신(Hyper-Innovation) 의미를 부각해 초융합·초연결·초지능으로 대표되는 시대에 진정한 ICT(첨단정보기술) 리더로 거듭난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설명이다. LG전자는 ‘시그니처(LG SIGNATURE)’ 등 고가 전자제품군에 대해 ‘초 프리미엄(超 premium) 브랜드’라고 소개한다. 범용 제품보다 디자인·품질·성능이 탁월하다는 의미를 강조한 말이다. 정보기술 업계에서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인터넷·통신기술·미디어의 발달로 인간-인간 뿐만 아니라 인간-데이터-사물 등 모든 것들이 실시간 연결돼 정보를 주고 받는 사회를 일컫는다.” _ 산업만평 김병문 기자

5G 시대가 시작되었다. 주목해야 할 단어가 ‘초(超)’, ‘과도한, 초월한 (Hyper)’ 이다. 모든 단어에 ‘초’가 붙어 있다. 무슨 말인가? 시, 공간으로부터 오는 모든 땅의 제약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기까지 펼쳐지고 있다.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세상이 먼저 ‘시,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불안함이 그 어느 때 보다 가중되고 있다. 모든 것을 뛰어 넘어선 ‘초연결 사회’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성은 무엇인가?

4. 풀림의 사고.

‘초연결 사회’ 속에서 가장 적합한 사고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다른 차원의 삶(땅의 한계를 넘어선 하늘의 사고, 영적인 사고방식)을 사는 성도와 교회이다.

(1) 열림과 풀림의 사고방식

급변하는 시대속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막힌 사람이다. 막힘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내가 만든 벽이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다. 흐르는 물을 막을 벽은 없다. (댐도 홍수가 나면 열어야 부서지지 않는다)

급류와 같은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어떤 존재로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도 이와 같다. 내 생각,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묶는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지 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ㄱ) 풀려야 산다

묶임은 ‘집착’이다. 집착은 욕망이다. 돈에 묶여 있는가? 돈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십자가 앞에 못박아야 한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집착을 못박는 곳이다. 예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사건은 그래서 놀라운 것이다.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다.

ㄴ) 풀림의 생활을 하라

이제 노예가 아니다. 풀린 사람답게 사고하고 풀려라. 나사로를 풀어 놓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자. 풀린 나사로는 다르다.

(2) 멍힘을 조심하라 - 용서의 삶 / 십자가의 삶

한 번 묶이거나 멍히면 풀기 어렵다. 그래서 멍힘과 묶임을 주의해야 한다. 멍히면 막힌다. 멍힘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삶이다. 마음의 멍힘이 결국 모든 하늘의 복을 막아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마음의 멍힘은 생각을 병들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한다. 그러므로 이제 풀어야 한다. 풀어야 산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나 자신을 먼저 치단해야 한다. 그러면 산다. 다시 하늘이 열린다.

[창세기 33:3-4]

3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일곱 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4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창세기 32: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 되었다.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 야곱의 첫 행보는, 그 마음안에 묶인 형 에서와의 맺힌 관계를 푸는 일이었다.

이 일이 왜 중요한가? 야곱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다. 드디어 하늘의 축복을 오롯하게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 과정이 에서와의 묶임을 마음에서 먼저 푸는 일이었다. 야곱이 먼저가서 일곱 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 때 에서가 달려가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들이 함께 울었다. 야곱의 인생에 묶여있는 절대적 매듭이 풀어지는 순간이다.

푸는 자는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묶임을 푸셨다. 이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풀어야 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다.

(3) 트렌드와 유행을 따라가지 마라.

결국 세상이 말하는 새 시대는 또 다음 시대속의 구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만든 시대의 흐름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따라간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유행과 트렌드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새 길을 가라. 복음은 언제나 새 길을 만든다. 로마의 길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위에 전해진 복음의 길은 로마가 만든 제국의 영이 있는 길이 아니다. 섬김, 사랑, 존중의 길이 그 위에 덮어졌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마라.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소신있게 살아가라. 우리 마음안에 있는 ‘소신이 결국 확신’을 가져올 것이다. 소신은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후회없는 마음이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 삶에 소신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내 마음안에 확신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